

물 만난 주지훈, 즐거움의 연속

영화 '비공식작전' 외교관 납치사건 레바논 현지 택시기사 판수 역 맡아 넷플릭스 '킹덤' 김성훈 감독과 재회 배우 하정우와 버디 케미 "행운이다"



영화 '비공식작전'의 주지훈(41)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유롭다. 과장되게 보일 수 있는 캐릭터를 한 곳 차이로 능글맞게 그리고 서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감정의 깊이를 가능하게 한다. 주지훈은 이런 캐릭터의 완성도의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과 '비공식작전'을 함께한 김성훈 감독에게서 자부심을 느꼈고, 영화 '신과 함께'에 이어 호흡을 맞춘 배우 하정우를 신뢰했다. '비공식작전'은 1987년 레바논을 배경으로 하는 국내 최초 외교관 납치 사건을 다루는 논픽션 영화다. 외교관 민준(하정우)과 현지 택시 기사 판수(주지훈)의 케미가 흐름의 핵심으로, 캐릭터가 확실해야 했다. "판수는 월남전을 다녀와서 한국에서 이

런저런 일이 있고 레바논으로 흘러온 배경이예요. 거긴 지금도 동양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 시대는 더 험한 거예요. 호객행위를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눈에 띄어야 해서 외관이 화려한 것을 선택했을 거고요. 체구나 외관에서도 풀리지 않으려는 욕구가 있을 거 같아서 몸도 많이 불렀어요." "돈 밝히는 사기꾼 기질의 소유자라는 캐릭터는 확실하지만 그 외 설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배우로서 재미가 가득했다.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다. 그 바탕에는 김성훈 감독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알기론 지방이나 해외를 갈 때 제작팀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뿐이에요. '내 방에 책

상을 놔달라'고요. 모든 감독님이 (디테일한 작업을) 하지만 김 감독님은 같이 작업한 감독님 중 최고 수준이에요. 감탄이 나와요." 긴박함과 쫓겨난 긴장감을 살린 카체이싱도 김 감독의 연출 덕분에 산 장면이다. 특수 요원이 아닌 캐리커가 뛰어남 액션으로 쾌감을 보여줄 수 없을 때 빛을 발하는 김 감독의 집요함과 노고라는 게 주지훈의 설명이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명확하게 요구하는 김 감독과의 작업에서 의심할 만한 건 없다.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해도 믿지 않은 이유다. "오악 할 만큼 힘든 장면이 많은데 그때를 떠올려보면 즐거웠어요. '킹덤' 때도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는데 즐거운 기억만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힘을 가진 감독님이예요."

하정우와는 영화 작업에 이어 티빙 예능 '두발로 티켓팅'까지 함께할 정도로 절친한 사이이다. 연기를 대하는 스타일은 달라도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하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장애물과 해외 로케이션 (모로코)이라는 조건에서 말하지 않아도 표정과 눈빛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배가 있다는 건 행운이었다. "서로 비밀 연덕이예요. 그래도 너무 신뢰하니까 내가 푹 던져 봤는데 정우 형의 생각이 확고하면 거기에 맞춰 생각해 봐요. 그러면 틀린 건 없어요. '저 해석 되게 재밌네'하고 일단 받아들이고 해보죠. 그럴 때 '우악' 했던 장면이 많았어요. 배우로서 넓어지는 장면들이요."

주지훈은 이 모든 걸 즐기고 있다. 올해를 빅4 영화 두 번째 주자로 나서는 소감을 묻자 "폴리조 뭐"라고 답답하게 내뱉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는 말의 의미와는 다르게 작업 자체에 설레고 행복한 마음이 더 크다. "빅4 영화 제작진, 배우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예요. 이번 여름을 떠나서 코로나 이후로 영화를 작업하는 배우로서 한국 영화계가 조금 더 힘을 얻었으면 해요.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싶었죠. 다른 작품이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 질투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관객들에게 모든 작품이 감동을 선사해서 한국 영화계 자체가 건강해졌으면 해요."

배우로서 퍼즐을 맞춰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때다. 캐리커를 분석하고 감독의 기획과 시선을 따라가고,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저 즐겁다. 한자리에 앉아 10시간씩 하는 회의도 일이 아니라 재미로 느껴진다.

"감독님이 집주인이고 배우들은 세 들어 사는 거거든요. 세계관을 창조하는 건 감독님이잖아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르게 내려놓고 연기해야 할 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 의도와 다른 연기를 밀어붙이면 이상하고 환조. 이 집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죠.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를 상의하는 것이 작업 중 하나예요.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로 극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웃음)



'힙하게' 김석운 감독, 촬영 비화·관전 포인트

오는 12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

드라마 '힙하게' 김석운 감독이 촬영 비화와 관전 포인트를 전했다.

2일 '힙하게' 측은 김 감독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킹더랜드" 후속 드라마 '힙하게'는 농촌 마을 무진에서 우연히 생긴 사이코메트리 능력으로 동물과 사람의 과거를 볼 수 있게 된 수의사와 서울 광수대 복귀를 위해 그의 능력이 필요한 형사가 펼치는 코믹 수사 활극이다. 수의사 봉예분 역에는 한지민이, 형사 문장열 역에는 이민기가 분한다.

김 감독은 '힙하게'의 제목에 대해 "감각적이고 신선하다는 느낌에 엉덩이(hip)를 만져야 사이코메트리자가 되는 주인공의 능력이라는 의미를 더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코미디와 스릴러 장르를 한꺼번에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작품의 매력으로 꼽은 후 "자잘한 사건에서 오는 소소한 코미디를 즐기다가 어느새 연쇄 살인이라는 스릴러의 중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힙하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오락적인지 짚어보는 것이 내내 화두였다"고 김 감독은 밝혔다. 이어 "시청자 여러분에게 재밌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대상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힙하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오락적인가?" 하는 것이 내내 화두였다"고 밝힌 김석운 감독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재밌고 흥미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대상에 대해 얼마만

큼 이해하고 있고 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짚었다.

여기에 한지민, 이민기, 수호 등 배우들의 활약이 더해졌다. 김 감독은 "단아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한지민 배우에게 코미디라는 옷을 제대로 입혀보고 싶었다"며 캐스팅 비화를 밝혔다. 이어 "(한지민은) 스릴러와 코미디를 오가는 스토리라인에서 양 극단의 연기를 완벽히 소화해내며 중심을 잘 잡아줬다"고 전했다.

이민기, 수호에 대해서도 남다른 신뢰감을 드러냈다. 김 감독은 "나의 해방일지에서 만난 내 나는 현실 남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완벽히 표현한 이민기 배우의 또 다른 면인, 허세 장착한 밋밋 않은 남성의 모습을 끌어내 보이고 싶었다"며 "한지민 배우와의 연기 합, 특히 코미디 합이 최고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호에 대해 "배우로서의 잠재력이 궁금했다. 극중 김선우라는 캐릭터를 완벽한 싱크로율로 연기해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감독은 "재밌는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다. 한지민과 이민기의 새로운 캐릭터를 즐기는 맛이 일품일 것"이라며 "두 배우 자체가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석운 감독은 "재밌는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기획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드라마다. 수의사 봉예분을 연기한 한지민, 문장열 형사를 연기한 이민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두 배우의 새로운 캐릭터를 즐기는 맛이 일품일 것"이라며 "몸 사리지 않는 연기와 더불어 코미디 합까지 완벽했던 두 배우 자체가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힙하게'는 12일 오후 10시30분 첫 방송된다.

빅4 첫 타자 '밀수' 박스오피스 1위 수성



'더 문'·'비공식작전' 가세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혜수·염정아·조인성·박정민·고민시·김종수 등이 호흡을 맞췄다. '밀수'는 개봉 4일 만에 100만명, 7일 만에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기록을 세우고 있다.

2위는 변동 없이 픽사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이 차지했다. 역대 국내 개봉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3위에 오른 '엘리멘탈'의 누적 관객수는 587만8816명이다. 배우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딩 파트 원'은 누적관객수 365만3783명으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밀수'의 독주에 이날 김용화 감독의 '더 문'과 김성훈 감독의 '비공식작전'이 동시 출격한다.

'더 문'은 대한민국 우주 대원 선우(도경수)가 홀로 달에서 조난을 당하고, 지구에 남은 전 우주센터장 재국(설경구), 나사 달 궤도선 메인 디렉터 문영(김희애) 등이 힘을 합쳐 선우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비공식작전'은 1987년 레바논에서 납치된 외교관 동료를 구하기 위해 뛰어난 민준(하정우)과 현지 택시기사 판수(주지훈)의 버디 액션 영화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실시간 예매율은 1위가 '밀수' 21.1%, 2위 '더 문' 16.7%, 3위 '비공식작전' 14.3% 순이다.

방탄소년단 뷁, 첫 솔로 앨범 낸다...민희진 총괄 프로듀싱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뷁(V·김태형)가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총괄 프로듀서인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손잡고 첫 솔로 앨범을

"주목했으면 하는 건 음악"

낸다.

2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뷁의 제안으로 민 프로듀서가 그의 음반을 총괄해 음악, 안무, 디자인, 프로모션 등 이번 앨범 제작 전반을 진두지휘한다.

민 프로듀서는 뉴진스의 성공을 이끌어 현재 K-팝과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통한다.

민 프로듀서는 "지나해 말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스케줄 때문에 망설였지만, 뷁의 태도와 열정, 그리고 잘 몰랐던 그의 음악이 흥미로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음악이다. 뷁의 취향을 반영한, 동시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음악들로 준비했다. 익숙한 스타일보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잘 소화할 수 있는 음악에 중점을 뒀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만, 재미있는 작업물이 나온 것 같다"라고 기대했다.

뷔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마지막 솔로 주자로 나선다. 그는 "떨리지만 행복하다"라고 솔로 앨범 발매 소감을 전했다. "제 취향이 고스란히 들어간 앨범이다. 볼거리가 풍성할 것"이라며 "아미 분들이 행복하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방탄소년단 뷁와는 또 다른, 솔로 가수 뷁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뷔는 그동안 솔로곡 '스티그마'(Stigma), '싱귤러리티'(Singularity), '이너 차일드'(Inner Child)'를 통해 히스키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을 들려줬다.

자작곡 '네시(4 O'CLOCK)'와 '풍경', '윈터 베어(Winter Bear)', '블루 앤드 그레이(Blue & Grey)', '스노우 플라워(Snow Flower)' 등을 통해 작사·작곡에서도 역량을 발휘했다. '죽어도 너야(드라마 '화랑' OST)', '스위트 나이트(Sweet Night)(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OST)',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드라마 '그해 우리는' OST)' 등 드라마 OST에도 참여했다.